

퓨어스토리지-EMC, 양사 합의로 특허소송 취하

2016년 10월 19일— 스토리지 기업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kr, 지사장 강민우)와 EMC가 양사 간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Dell에 대한 비용 지불, 양사 간의 모든 소송 취하, 분쟁 특허에 대한 상호양도 계약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다.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퓨어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며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기술은 낮은 비용으로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고객의 비즈니스 및 IT를 변화시킨다.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m(FlashArray//m)은 정형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는 비정형 데이터에 이상적이다.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만족도를 산업 표준 지표로 측정하는 성공 지수인 NPS에서 83점을 받으며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퓨어스토리지의 고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고객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앞으로도 퓨어스토리지는 고객의 보다 빠르고, 지능적이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